

바른미래 파열음...‘패스트트랙’ 표결 무산

의총, 선거제 등 처리 놓고 두쪽으로 갈라져 고성·몸싸움
손학규 퇴진론 찬반 팽팽...호남신당설 “지금은 아니다”

한 지붕 두 가족처럼 아슬아슬하게 이어오던 바른미래당이 18일 의원총회에서 결국 정면충돌했다.

지난 4·3 재보궐 사퇴로 터져 나온 손학규 대표 퇴진론에 더해 공직선거법 개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를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지정)으로 처리할 것이냐를 놓고 찬반으로 갈라지며 파열음을 낸 것이다.

이면에는 안철수 전 의원 중심의 옛 국민의당계와 유승민의 바른정당계간에서 둘러뒹뒹 태생적 차이가 총선을 앞두고 당의 진로와 맞물려 분출된 것이라는 해석도 제기된다.

실제 손 대표가 최근 내세운 ‘제3지대론’ 작업의 일환으로 호남을 주축으로 한 신당 창당을 준비한다는 소문이 바른정당계를 자극했다. 일부 의원들은 이러한 손 대표의 행보가 ‘해당(害黨) 행위’라며 즉각 사퇴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당 출신 일부 중진의원들은 손 대표를 감싸며 지도부 사퇴론이야말로 당을 분열시키려는 획책이라며 반박했다.

양측간 인신공격성 발언까지 나오면서 바른미래당이 사실상 분당 수준에 돌입한 것 아니냐는 관측마저 나왔다.

손 대표는 비공개회의에서 “당 혼란에 죄송하다. 여러 정계개편설이 있지만, 거대 양당체제 극복이 중요하다”며 “지금은 때가 아니다. 단합하자”고 말했다고 복수의 참석자가 기자들과 만나 전했다.

그러나 이언주 의원은 “제대로 된 중도보수 야당을 만들자고 했는데 결과적

으로 지리멸렬한 상태가 됐고 계속해서 여당의 눈치를 보는 2중대로 전락했다”며 “즉각 당 대표직을 그만 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기에 바른정당 출신인 유의동 의원도 “당의 리더십 교체가 필요하다”고 가세했고, 지상욱 의원 역시 “호남 신당 창당과 관련한 최근 언론 보도에 대해 손 대표와 박주선 의원은 각성하라”고 비

판했다.

그러자 김관영 원내대표가 “이 의원은 발언권이 없다. 참관만 허락한다”고 즉각 제지했다.

또 “대표를 흔드는 것은 좌시할 수 없다” (박주선 의원), “이 의원은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라” (임재훈 의원)는 등 국민의당계가 손 대표를 엄호했다.

손 대표를 ‘찌질하다’고 비판해 최근 당원권 정치 징계를 받은 이 의원은 회의 시작에 앞서 의총장 진입을 막는 주 최 측 당직자들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양측 간 공방이 이어지면서 정작 의총

의 핵심 안건이었던 패스트트랙 문제는 회의 시작 후 1시간이 넘어서야 논의됐다.

원내 지도부는 앞서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3당과 마련한 패스트트랙 잠정 합의안에 대한 의견을 재차 수렴한 후 끝내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표결까지 강행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이 역시 바른정당계 의원들이 격하게 반대하면서 표결처리는 결국 무산됐다.

결국 이날 오전 9시부터 3시간 30분간 진행된 의총은 당내 분란만 공식화한 모양새가 됐다.

/연합뉴스



굳은 표정의 바른미래당

18일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의원총회에 참석한 손학규 대표와 박주선 의원이 굳은 표정으로 유승민의 의원측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5·18 유공자 서훈’ 국회 토론회 오늘 개최

김삼웅 “5·18 유공자 합당한 예우 시급”

‘5·18 민주화운동유공자 서훈’을 위한 토론회가 19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9 강당회의실에서 개최된다.

민주평화당 천정배(광주 서울)·최경환(광주 북울) 의원과 민주평화당 주최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김삼웅 전 독립기념관장이 ‘5·18국가유공자 서훈의 역사성’을 주제로 발제를 맡는다. 토론자로선 조진태 5·18기념재단 상임이사, 김충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부장, 김재운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나선다.

김삼웅 전 관장은 발제문을 통해 “문명사회의 모든 국가는 ‘상벌(賞罰)’을 질서유지의 근본으로 삼는다”고 밝힌 뒤 “우리 사회는 국가와 민족에 공헌하는 사람에게 상을 주고 반역자에게 벌을 준다는 만고의 준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고, 그 반대로 반역자들이 공을 가로채거나 공훈자들을 탄압하고 폄하하는 반이성적인 역설의 사회가 지속되었다”며 “5·18 유공자에 대한 국가의 합당한 예우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천정배 의원은 자료집 인사말을 통해

“지금까지도 5·18에 대한 일부 몰지각한 세력의 의도적인 왜곡, 날조가 끊이지 않는다.”며 “5·18 열사들에 대한 서훈은 대한민국의 헌법정신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20일 여야 4당(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과 무소속 등 의원 50명은 ‘5·18민주화운동유공자 서훈 촉구 결의안’에서 “대한민국 국회는 전두환 신군부의 쿠데타와 민간인 살상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투쟁한 광주민주화운동이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뿌리임을 확인하

고 5·18 희생자들의 명예를 드높이기 위해 1980년 5월 18일~27일 광주와 전남 일대에서 계엄군과 싸우다 희생된 열사들에 대한 서훈을 촉구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날은 국무총리도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관련 서훈 필요성에 대한 국무총리의 입장은 무엇인가?’라는 천정배 의원의 서면 질의에 대해 “5·18 민주화운동 과정에서의 공적, 유사 서훈 사례, 국민적 공감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변함으로써 5·18 유공자에 대한 서훈 가능성을 열어뒀다.

/김진수기자

이미션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文, 오늘 임명

문행배·이미션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결국 불발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이들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을 논의할 계획이었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불참하면서 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았다.

당초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문

행배 후보자 청문보고서만 채택하자는 입장이었지만, 민주당이 두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를 모두 채택하지 않으면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며 회의 자체를 보이콧했다.

이날 보고서 채택이 무산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이들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전자결재 방식으로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추경안 25일 제출...당정 “안전·민생지원 목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8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오는 25일 국회에 제출하고 5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협의회를 열고 추경안의 핵심 추진 사업과 규모 등에 대해 논의한 끝에 이같이 합의했다고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당정은 우선 강원 산불 피해 지역 지원을 위해 고성 등 5개 특별재난지역 내 희망 근로를 2천명 이상 추가 지원하고,

산림복구, 소방헬기 등 장비보강, 산불 특수진화대 인력 확충 등과 관련한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한 포항 지진 피해 지원을 위해 지열발전 현장의 안전관리 강화,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 특별 지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전통시장 주차장 등 민생 지원 예산을 포함하기로 했다.

아울러 포항 흥해 특별재생사업 매칭 비율을 70%에서 80%로 높이고,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도 지원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이해찬, 22일 ‘여의도 복귀’ 장관들과 만찬

김부겸 등 만나 총선 앞둔 당내 역할 논의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김부겸 의원 등 당으로 복귀한 문제인 정부 1기 각료 출신 의원들과 저녁 자리를 함께하며 복귀자들의 당내 역할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18일 민주당 복수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오는 22일 각각 행정안전부·해양수산부·문화체육관광부 장관직을 마치고 돌아온 김부겸·김영춘·도종환 의원과의 만찬을 마련했다.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청와대 출신, 김부겸 의원 등 내각 출신의 중량감 있는 인사들이 당으로 속속 복귀하고 역할론이 대두되는 등 민주당은 총선 체제로의 전환 흐름이 빨라지는 모습이다.

문 대통령의 최측근인 양정철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이 다음 달 민주연구원장에 취임해 총선 전략 지휘에 착수하면 인제 영입 등 구체적인 준비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주승용 “산단 전수조사 배출농도 조작 차단”

주승용 국회부의장(4선·여수울)은 여수산업단지에서 대기업이 지난 4년여 동안 배출농도를 속여 온 사건과 관련, “대기업의 도덕적 해이와 관리감독 주체인 정부의 관리 소홀이 근본적인 원인이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주 부의장은 이어 “현행 제도는 기업이 측정대행업체를 직접 선정하는 구조로 인해, 측정대행업체가 ‘을’이 되고, 측정을 받는 기업이 오히려 ‘갑’이 될 수 밖에 없다”면서 “여수산단 뿐 아니라 전국의 산업단지가 비슷한 상황이므로 이번 기회에 전국의 산업단지를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미세먼지 원인물질 배출



농도 측정’의 조작을 차단할 수 있는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배출농도를 측정하는 업체 선정 및 대금지급을 기업이 아닌 정부 또는 지자체 직접 하도록 하고, 환경부에서 광역단체로 이관한 관리권을 해당 시·군에서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진수기자

오천경매

투자에 관한
모든 상담
010-3605-5000

신창동, 근린상가

- 광산구 신창동, 가도빌딩 (전남공업고 옆 사거리 코너)
- 대지지분 52평, 건물 170평
- 4층중 2층 201호 전체, 준주거지역
- 주위에 고등학교/대학교 단독주택 아파트 상업용건물등 혼재, 위치좋은
- 보증금1억에 월400만원 임대가능
- 감정/시세-11억
- 매매-8억 8천만원(일시불 조정가능)
- 문의. 010-6834-7400

금매전문



[빌딩]

- 유럽풍 최고급 상가주택
도심속 전원별장 무등산자락 2차선도로접
대지230㎡ 건335㎡ 매가:상담후결정
- 계림3지구 재개발지 대로변 상가50% 급처분
2차선도로접 대지445㎡ 건1,500㎡
급매가11억(3.3㎡당820만원)
- 사옥, 병원, 은행 건물
대인동 대단지 아파트, 대인시장인접
4차선대로변 대지515㎡ 건평2,100㎡
병원 허가병상70개
매가 : 협의후 결정(임대도 가능)
- 산수5거리 대로변 상가
대지162㎡ 건평500㎡ 급매가 7억

===== 지역별, 금액별, 종류별, 매물 다량 확보중입니다 =====

*** 빌딩, 상가, 주택, 임야등 썬매물 바로 계약합니다

===매수고객 다수 현금들고 대기중입니다.

금매부동산 [즐거운부동산] 유재관 대표공인중개사 010-6495-3787
광주 동구 제봉로198(대인동312-26)

경매투자자

오천경매
010-3605-5000